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



또 하나의 승가, 국회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이제 겨우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이 일기가 끝나지 않거나 국가 일에 정성을 다하여 임할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의사당에 들어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긴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야당 되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는 것이요, 여당이 야당 되면 골짜기 승복할 수 없는 거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정권을 잡고 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나, 정권을 놓친 것에만 미련을 두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보고 있기 힘들고 민망해질 정도입니다.

국회도 승가입니다. 승가(僧伽)란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며 수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자들을 가리키지만 이 말은 본래 '무리, 모임, 집단'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목적을 함께 하여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상가(僧伽)'라고 불렀으며, 이 말을 부처님도 빌려와서 교단을 승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성원은 일단 승가에 들어오면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버릴 필요까지 없겠지만 다른 이들과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합승'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오래도록 가장 훌륭한 가치를 위해 존속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동네, 어느 동창회, 어느 문중,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이겠지만 일단 배지를 달고 의사당에 자리를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계급까지도 철저히 지워버리는 승가라고 해서 어찌 같습니까? 다름이 없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다름 해결법을 제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름을 가라앉히는 일곱 가지 법은 깊이 생각해보면 만합니다.

신분계급까지도 철저히 지워버리는 승가라고 해서 어찌 같습니까? 다름이 없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다름 해결법을 제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름을 가라앉히는 일곱 가지 법은 깊이 생각해보면 만합니다.

“아나야, 다름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다스려라. 먼저 본인이 있는 앞에서 다스리고, 기억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이름 국회의원 나라 소중하다면 머리 맞대고 문제 풀어야

승가는 종종 바다에 비유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강물의 본래 이름은 없어지고 그저 바다라고 불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크스트리아, 바라곤, 장자, 거사 등의 구별이 있으나, 출가하여 법복을 입으면 세속의 성은 없어지고 오직 석가의 제자라고 불려질 뿐이다. 출가한 대중은 마치 바다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은 본래의 이름을 버리고 석가의 제자, 사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나로 말미암아 생겼고 법을 따라 이루기 때문이다.” <증일아함경> 제21권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그 화려하고 다양한 신분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기 그지없던 자기 계급과 집안의 성을 버리고 석(釋)씨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예전의 기득권은 물론이요 피해의식 따위도 모두 내버려라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얽매다 보면 최고의 목적인 깨달음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요, 그 모일(승가)은 자칫 분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을 떠올리게 하여 다스리고, 불완전한 정신이 있을 때는 건강을 회복한 뒤에 정상으로 인정해 주고, 본인의 자백에 의해 다스리고, 다수결에 의해 다스리고, 싸움을 끝내려면 풀로 땅을 덮듯 불문에 부쳐야 한다.” <중아람 주나경>

탁난한 스님의 설명을 빌리면 이 경전의 말씀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면 첫째,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라. 둘째, 당사자들은 갈등을 생기기 만든 모든 세부적인 일들을 기억하여라. 셋째, 고집을 버리고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넷째, 잘못으로 진흙을 가리듯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주도록 하라. 다섯째, 남들이 말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고백하라. 여섯째, 모든 대중들의 합의를 통해 일을 결정하라. 일곱째,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승가는 이런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나라가 소중하면 국회의원은 승가는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침체로 자꾸 그늘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최소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까지는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미형(명국역경원 역경위원)

개미나 고래나 불성은 똑같다



정천 스님

(서울 도선사 조실)

베고 버려진 고목이 찬 나무를 의지하니(催發枯木依寒林)
몇 번이나 봄을 만나도 마음 변치 않았던고(幾度逢春不變心)
나무꾼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거늘(樵客遇之猶不顧)
목수가 이를 어찌 간절히 좇을까 보냐(誰那得苦追尋).

서울에서 5시간을 허위허위 달려간 고성 문수암. 정천 스님께 법문을 청하자 스님께서는 대대 스님의 말을 인용해 위와 같은 계승부터 읊었다. 평소 언론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스님은 이 계승을 통해 심경을 표현한 것 같았다. 여기서 베고 버려진 고목은 '이렇고'와 평생 써들하는 수 죄를 지칭하는 것 같다. 이 고목은 몇 번이나 봄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기상을 보인다. 세인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거늘 깊이 정진 수도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누구 탓할 것없이 현재 모습이 중요

스님은 이 외에도 다른 글귀를 인용하며 수행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를 설명했다. 또 말씀은 자연스레 스님의 젊은 시절 수행담과 함께 수행자가 지켜야 할 몸가짐으로 넘어갔다. 정천 스님이 운허 스님에게 공부 배울 때였다. 어느 정도 절에 오래 있자보니 스님에게 절 살림을 맡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천 스님은 살림을 맡으면 공부에 방해받을까 싶어 도망갈 궁리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 스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우리는 어린 스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어린 스님이 야단치시더라도 안색으로 나타내면 안돼. (사미음의(沙彌律儀))를 보면 5년 동안은 예의범절을 배우잖아. 그것만 명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천 스님은 나이 갈수록 감각적이고 물질적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발심해 수행하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전제하셨다.

“육지전생사 금생수자시(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전생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생 일 육지내생사 금생자시시(欲知來生事



“시절인연”이라는 것은 도를 깨지기까지의 끊임없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니 늘 정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천 스님.

今生作者는 내생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생 일”을 설명하시며 누구 탓을 할 것 없이 현재의 자신이 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스님이 생각하는 수행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스님은 잠들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 보고라고 한다.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다보면 자연스레 왜 출가했는지 떠올라지고, 초발심을 되새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남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스님은 또 ‘돈을 놓고 탁자 밑에서 죽는 것’이 가장 희망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질적 욕망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 같았다.

“불교는 무시무종이라. 시종도 끝도 없이. 현대 과학이 고체, 액체, 기체, 분자, 전자, 미립자, 소립자, 허공까지 왔지. 그렇다면 허공의 모체가 있어야 돼. 진공(眞空), 묘유(妙有), 법신(法身)이라. 이것은 부처님도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나 가섭존자가 그 법을 전하셨어. 전할 수 없는 법을 전하고 받을 수 없는 법을 받는 것이 진리야. 설하지 않는 법을 설하고 듣지 못한 법을 듣는다는 것이지.”

부처님은 끝난 법은 법문 하나도 설한 바가 없다고 했거든. 그런데 깨달음이란 것은 부처님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야. 깨달아서 부처인 거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가자 말 그대로 장 광설(長廣)이다.

“깨달음에는 돈도 있고 점수도 있지.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지. 개미라고 불성이 작고 고래라고 불성이 큰 것은 아니야. 비유를 하나 들어 보지요. 서울 공기를 병에 담아와 그 병뚜껑을 여기에서 열면, 서울 공기는 줄어들고 여기 공기는 늘어날까. 막힌 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통하는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거든. 집의 문을 열 때 공기가 연결되는 것으로 봤나. 문을 닫을 때 공기

가 차단되는 것으로 봤나. 불생불멸의 오묘한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금으로 가락지를 만들면 형태(形)는 변하더라도 체(體)는 안변해.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야. 수연(隨緣)하면서 불변(不變)하고 불변하면서 수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내가 말하는 법문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

스님은 수증기를 비유로 들었다.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로 변한다. 이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다 떨어진다. 여름이면 비가 되고 겨울이면 눈이 된다. 다시 말해 열을 가하면 순환하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다.

“시절인연”은 구도향한 끝없는 노력

“천지이치가 생주이멸(生住異滅), 생로병사(生老病死), 회자정리(會者定離)야. 생겼다 사라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란 말이야. 하나만 있으면 숫자가 되지 않아. 적어도 두개는 있어야 돼. 중생들은 현상계만 보고 있어. 일차원. 이차원. 삼차원을 넘어 사차원의 세계는 공한 세계인 것이야.

즉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의 세계란 말이지. <금강경>에서는 모든 모양을 모양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볼 때, 생명실상의 본질을 볼 때 깨달았다고 해. 수식관도 있고, 백골관도 있고, 목조선도 있고, 간화선도 있고, 여래선도 있고, 조사선도 있어. 여래선은 물에 도장 찍는 것과 같고, 조사선은 허공에 도장 찍는 것과 같아. 방편으로는 열불이 제일 쉬워. 바닷물은 짐잡하지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 물은 파도 소식을 알지만 파도는 물 소식을 알지 못하지.”

스님은 당송팔대가중 한명인 소동파 이야기를 꺼내면서 깨달음 향한 끊임없는 참구도 당부했다.

소동파가 상종 선사를 찾았을 때다. 소동파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기 위해 법문을 청하자 상종 선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무렵

마하물 수험생합격기원용품 특별지상기획전

이벤트 하나, 모든 구매고객에게 열반의 미소 CD를 드립니다. 이벤트 풀,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불보살캐릭터택자를 증정합니다.

■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이명(의)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15,000원
 - 재질 : FINE GOLD 99.9%
 - 색상 : 검정, 녹색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세트 : 19,800원
 순금카드(골드파우더)+열쇠고리+후대폰걸이
 - 중앙금(1톤)카드 : 120,000원
 - 붓다열쇠고리 : 5,000원
 - 붓다핸드폰걸이 : 3,000원

■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 반야심경 순반지 - 반야심경 진면270자각 2인한 순반지
 - 14K : 245,000원
 - 18K : 352,000원 (외부(外脚))

■ 반야심경 열반지 38,500원
 - 은 92.5% 로플도금
 - 크기 : 폭 약 8mm

■ 반야심경 목걸이(원형,사각) 48,000원
 - 가로 18mm, 세로 33mm
 - 가로 21mm, 세로 32mm
 - 재질 : Silver 92.5%
 - 원턴트와 체인 포함(은)

■ 반야심경 펜던트 Gold
 - 14K : 245,000원 ※차인
 - 18K : 352,000원 별도

■ 수험생을 위한 기능성음반
 [5,000원] → [13,500원]
 - 실력 발휘 - 결정적인 순간에 120% 능력 발휘, 시험도 업무도 기법게 테스트
 - 집중력향상 - 음대 능력을 자극하는 서브리미널 메시지
 - 플러스사고 - 마인드 컨트롤 효과로 자신감과 활력이 생깁니다.

■ 소원성취 합장초 : 17,000원
 샘플형(소3개,대2개)
 - 소(小) 20개입 : 60,000원
 - 대(大) 20개입 : 100,000원

■ 것바위 소원성취 메달
 49,500원 - 은(99.9%)이상
 - 직경 : 40.0±0.1mm
 - 표면처리 : 무광 프루프
 - 재료구성 : 메달, 플라스틱 캡슐, 고급케이스

■ 연실합장주 6,000원
 - 상이있는 세앗이므로 사용하시다가 실증되면 언제든지 연실의 아랫부분을 3mm정도 잘라 물에 담궈두면 반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연꽃핸드폰걸이 6,000원

■ 연실열쇠고리 12,000원

■ 연꽃목걸이(고급) 15,000원
 - 재질 : 연실(연꽃씨앗) - 사이즈 : 18mm x 13mm (천연 연꽃씨앗이므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 상이있는 연꽃씨앗을 이용해 핸드메이드한 친화력적인 제품입니다.



문수암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통일기원 청동약사여래대불' 과 나란히 선 정천 스님. 16m규모의 이 대불의 점안식을 내년봄에 갖는다.

게 입을 연다.

“당신은 어느 스님을 추천하였소?”
 “네, 소생은 여러 고을을 전전하면서 많은 큰 스님을 뵈 기회가 있었습니단만 여지껏 깨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찌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有情說法)을 청하시오?”

사주·관상 좋아도 마음상만 못해

어떻게 수많은 선지식을 친견해 여러 가지 법문을 듣고, 또 자신이 불결과 조사어록을 많이 봐왔지만 무정설법을 듣는다는 얘기는 처음이었다. 즉 들, 물, 산이 설법을 한다는 것이다.
 무정설법 네 글자에 온 정신을 쏟아 참구하며 집으로 돌아오면 중 소동파는 푸포수를 보고 크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은 심경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계곡소리가 부처님 장광설인데(溪聲便是長廣舌)
 산 모습이 바로 부처님 청정한 법신이 아닌가(山色豈非清淨身)
 여래의 팔만사천 미묘법문을(徠八萬四千偈) 다른 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라(他日如何舉似人)

“흔히들 시절인연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시절인연이라는 것도 도를 깨치기까지의 끊임없는 노력을 말하는 거야. 시절인연이 무뎠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야. 무정설법 녀자에 마음을 빼앗긴 채 자신과 주위 환경을 잊었던 소동파 같은 끊임없는 참구, 이것이 곧 시절인연인 것이요, 깨달음에 이르는 필수과정이야.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것이지.”
 계율에 대한 스님의 생각도 궁금했다.

“시대에 흐름에 두루두루 맞는 것이 진리야라고 하고 계율이야. 물은 그곳에 따라 변해. 수기설법(隨機說法)이라. 기를 뒀어야 법을 설하고 병을 알아야 약을 지어 줘.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고 도둑이 있어야 경찰이 필요해.”

어려울때 남을 위한 마음 내보자

마지막으로 스님은 경제난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법문을 주었다.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아요. 남을 위해 보살행을 해야 해. 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마음상만 못해.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다고 인상만 쓰지 말고 안색을 환하게 하고 남을 위해 마음을 내봐요. 보살행을 실천해 남을 즐겁게 해주면 국가경제는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지.”

글=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산길에 개미떼 나타나자 30리 돌아가

정천 스님은 정천 스님은 1947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으며 하동 쌍계사 주지, 영천 은해사 주지, 조계종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前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으며, 現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도 같이 수행했다. 법전 스님과 수행할 때의 일화 하나. 법전 스님

과 정천 스님이 결방을 지고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미떼가 출현해 길을 가로막았다. 그냥 지나가면 도맡점이 지쳐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개미떼가 밭에 밟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삼십리를 돌아갔다. 최근의 일화 하나. 문수암 인근 마을에 건축물 폐기장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돌았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반대 집회를 하기 시

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 이러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스님은 사람을 시켜 쌀 50되와 돈 50만원을 마을에 전달했다. 그 노스님이 바로 정천 스님이다. 스님은 3년 전부터 문수암 약사전에 높이 16m 규모인 '평화통일기원 청동약사여래대불'을 조성하고 있다. 내년 봄쯤 완공법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청담문도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정천 스님은 현재 고성 문수암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피안의 향훈> 등이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혜학 스님 (上)**

혜학(慧學) 스님은 진리의 세상에 세번 태어났다. 첫번째는 아버지인 영암(影庵)스님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눈을 뜬 것이다. 영암 스님은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 1958년 다 허물어진 망해사(望海寺)를 중건, 태고종 울산분원장도 역임하다 1977년 이른 나이로 열반하였다. 어린시절 형제들과 함께 눈을 떠보면 늘 예불을 하고 나서 참선을 하고 계셨지만 굳이 강권하지는 않으셨다고 한다. <급강경>을 통해로 외면서 종성을 하던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부처님의 길을 갈 아들이 누구인가를 조용히 물어서 옹기있게 손을 들고 대답하자 힘있게 그러라고 격려해 줌으로써 어린 혜학을 거듭나게 했다.
 두번째는 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덕담 스

법당 불사에 신도들을 동원 지원해 주시고 법문도 해 주시면서 군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혜학 스님은, 늘 가까이 모시면서 가르침도 받고 효도도 해 보리라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데다가 아버지인 영암 스님과 은사인 덕담 스님이 이미 열반하셔서 더욱 그리워지는 스승이 정무 스님이란다.
 이렇게 세 분 스님의 조화로운 지도로 거듭난 혜학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군법사로 입관하여 공군법당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모든 법사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창 고된하고 있는 피끓는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도록 지도하지만 혜학이 처음 부임한 횡성 공군기지는 법당도 무엇도 없는 곳이었다. 사무실만 얻어서 법요집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정신교육관에서 매주 법회를 보면서 불교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의욕에 찬 생활을 하였다.
 이때 같이 입관한 법사 한명이 교통사고로 손가락을 다쳐서 故 이 동신 법사의 영결식장에서 그 룻까지 더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열

군사정권 시절 군대서 포교 ‘아침이슬’ 부르자 법당 폭 차

심해 포교하였다. 외곽초소 경계군병들에게는 지프를 얻어 타고 다니면서 근방의 사찰에서 시주 받은 초코파이와 라면을 나누어 주고 부처님이야기가 적힌 쉬은 포교자료집을 전달하며 손을 잡아주던 고향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들의 표정에서 포교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공군교육사령부에서도 법사로 있었는데 새로 온 훈련병들에게 각 종교를 홍보하는 시간에 신부나 목사는 성경말씀대로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혜학 스님은 엉뚱하게도 ‘아침이슬’을 불려주었다. ‘아침이슬’은 당시 급지곡으로 데모할 때 부르던 노래였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그것도 군부대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혜학 스님이 그것을 한 것이다. 현역 명이 넘는 병사들이 ‘아침이슬’을 부르는 장면은 당시 그 자리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감동의 도가니였고 그래서 그런지 그후부터 법당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 앉는 것은 고사하고 법당 밖이고 산기슭이고 사람들로 가득 차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였다.
 혜학에게 법문을 듣고 부처님 진리를 접한 사별들과 장교들이 제대해서 망해사로 찾아와 차한 잔 마시면서 그 때 이야기를 추억담으로 나온다. 스님은 지금도, 비록 믿음의 방향은 다르지만 자신의 종교를 한사람에게라도 더 전하여 하나라도 더 포교하고자 노력하며 고민했던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있다.(계속)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열대과일의 여왕 망고스틴

과일의 왕 두리안

부처님도 즐겨드셨습니당
 강장효과가 뛰어난 과일의 왕 DURIAN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도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망고스틴은 '열대과일의 여왕' 이라고 불려집니다. 마늘처럼 생긴 과육은 향기가 있고 새콤달콤하여 열매 중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맛이 뛰어납니다. 망고스틴은 두리안을 드시고 난 후, 후식으로 드시면 두리안의 특이한 향이 희석됩니다.
 가격 : 1박스 4.5KG(45개~50개틀이) **90,000 원**

망고스틴을 드시는 방법
 과일의 중간지점을 손끝으로 눌러서 두리안 다음, 약간 비틀면 잘 따집니다.
 자주씩 껍질 안에 눈처럼 새하얀 과육이 숨어 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E-Mail : durian1357@hanmail.net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예금주 조영숙)

가격 : 3kg 35,000원
 6kg 60,000원
 12kg 120,000원

두리안과 망고스틴은 가장 싱싱하고 당도가 높은 시기에 수확하여 영하 40도에서 급냉보관하여 수입하므로 원산지맛 그대로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먹기 좋은 상태로 예동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든,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